

자조금사업 시급히 육성해야

유 세 종 (현대양계 편집장)

지 난해 12월에 사상 초유로 발생해 양계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피해는 우리 양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집단화 사육으로 각종 질병이 만연, 동물약품의 오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던 터에 대중매체들이 마치 중계방송하듯 연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보도하면서 소비량이 격감, 양계산업은 초토화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닭들을 마대에 집어넣고 생매장하는 광경을 보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소비량 격감이다.

안전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은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량을 크게 줄여 1월 한달동안 kg당 육계시세는 400원대가 무너지는 폭락을 거듭, 양계산업의 설자리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회오리 속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양계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육계의 수매비축과 병아리 및 종란 폐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량의 격감으로 소비감소량이 수매비축물량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그러한 사업은 양계산업의 안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향후 시세상승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계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써 서글픔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닭고기와 계란 등 안전성에 이상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 심리를 어느정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소비자 대중을 상대로 실시하는 홍보의 효과가 가시(可視)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나쁜 차치하고서라도 질병이 발생해 무엇인가 점점해 소비를 줄이는 심리는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우선했어야 한다.

둘째, 서둘러 자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조금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양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차별화를 통해 수입산물의 대응은 물론 수급조절 등 양계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제도이다.

더구나 자조금사업은 양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와 정부, 양계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양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돼 그 이익은 결국 농가로 환원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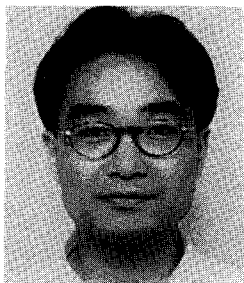
경기침체로 소비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등 외적변수로 안전성에 도전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그 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양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돈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현실에서 우리 양계인들은 자성해야 한다. 유독 양계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시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결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조금사업이 정착화되었다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소비량이 격감되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양계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자조금사업은 개방화시기를 맞아 계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양계산업을 지키는 보루로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전양계인이 일치 단결해 자조금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원년(元年)으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며...



이 일 호
(축산신문 기자)

양계산업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원고 청탁을 받을 때마다 기자로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그러하듯 지금까지 제시돼 왔던 것과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거부감과 함께 과연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전문지 등을 눈여겨 살펴봐도